

Nietzsche의 Dionysos의 世界觀

金 保 謙

Nietzsche에 있어서 Dionysos의인 世界觀은, 그의 處女作 〈悲劇의 誕生〉(Die Geburt der Tragödie)¹⁾속에 아름답게 表現되어져 있지만 後期의 作品에 이르기까지 그의 思想의 主要核心을 이루고 있다.

그는 生存流轉하는 生存現實을 率直 大膽하게 肯定하는, 生存大肯定의 世界觀을 Schopenhauer 哲學의 基礎인 “世界根源 意志”와 R. Wagner의 音樂의 流動性을 古代 希臘文化의 難解한 한 要素인 “Dionysos의인 것”과 同一視하여 이 觀點에서 希臘悲劇의 誕生을 說明했다.

傳統的인, 完成된, 固定된 既存의 文化要素 “Apollon의인 것”에 對하여, Asia의인 酒神 Dionysos 崇拜에서 淵由된, 形式 破壞的, 陶醉的이면서도, 同時에 革新的 要素가 豊富한 “Dionysos의인 것”이 希臘의 新文化인 悲劇을 誕生시켰다는 發想은 歷史上的 卓見이라 아니 할 수 없다.

Nietzsche의 이 “悲劇의 誕生”의 骨子は 砲聲이 울러터지는 普佛戰爭의 硝煙속에서, 志願看 護兵으로 負傷兵을 看護하면서 생각해 냈다.²⁾

죽음을 眼前에 두고, 生死의 境地를 彷徨하는 危急한 現實 속에서도, Nietzsche의 눈은, 人 類文化의 源流를 希臘에서 찾으려고 摸索했고, 西歐文化의 將來를, 아니 全人類의 빛나는 未來를 生의 根源의인 衝動에서 追求하였던 것이다.

Nietzsche에 依하면, 藝術에 있어서의 個別化의 要素인 〈Apollon의인 것〉에 立脚한 彫刻, 繪 畫 등과는 달리, 存在의 核心인 根源의인 一者(das Ur-Eine)와 合一하는 Dionysos의인 藝術의

1) Nietzsche : Nietzsche's Werke, Band 1. “Die Geburt der Tragödie”, Verlag von C.G.Naumann. 1899. (別途指示가 없는 한 大全集으로 表示한다)

2) Nietzsche : “Ecce homo”, F.Nietzsche Werke in 3 Bänden 2 Band, Carl Hanser Verlag, 1955. s. 1090. (別途指示가 없는 한 小全集으로 表示한다)

代表的인 것을 바로 〈音樂〉이라 하였고, 音樂精神의 最高發展의 形態를 〈悲劇〉으로 보았다.³⁾

그리고 Nietzsche에 있어서 그 悲劇이란 本能的이고 無意識的이고, 根源的인 本來的 存在 즉 〈Dionysos的인 것〉을 말로서 옮겨 놓은 것이며⁴⁾, 또한 生을 肯定하는 最高藝術(die höchste Kunst Jasagen zum Leben)⁵⁾로 보았고, 또한 悲劇의 存在核心을 永遠한 生을 示唆하는 것⁶⁾으로 보았다.

이 〈悲劇의 誕生〉은 바로 어떤 人間이 厭世主義가 아닌 證據의 表示로서 받아들였고⁷⁾, 또한 그는 「넘치는 生命, 苦惱, 快樂의 한 복판에서도 崇高한 恍惚의 境地에 젖어 있는 것」⁸⁾을 悲劇이라고도 했으며, 또한 「歡喜에서, 힘에서, 넘쳐흐르는 健康에서, 커다란 充溢感에서 由來된 것」⁹⁾이라고도 하였다.

따라서 그가 〈이 사람을 보라〉(Ecce homo)에서 말한 것처럼, 悲劇的情熱(tragische Pathos)도 또한 어떤 否定的·厭世的인 아닌 肯定的 情熱(Jasagende Pathos)과 同一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이다.¹⁰⁾

그리하여, 그는 古代에 있어서의 Dionysos의 音樂精神의 消滅과 함께 滅亡하고 만 Dionysos的인 悲劇을, R·Wagner의 音樂精神에서 蘇生시키려고 渴望했고, Schopenhauer의 “意志否定的 哲學”에서 歐羅巴 文化의 巨大한 希望을 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客觀的으로 볼 때 R·Wagner의 音樂은 Bach, Händel, Mozart, Beethoven의 傳統의 末端에 位置했고, Schopenhauer 哲學은 넓은 意味에서 獨逸 浪漫哲學의 最後의 體系가 아닌 가?

이들의 藝術이나 體系는, 過去의 總遺產을 繼承했다는 榮光을 누리면서도, 畢竟 그것은 過去의 集大成과 함께 秩序整然하게 한 時代를 閉鎖하는 것은 아닌가?

3) Nietzsche : 大全集 第1卷, “Die Geburt der Tragödie”, s. 49. “Der Weltsymbolik der Musik ist eben deshalb mit der Sprache auf keine Weise erschöpfend beizukommen, weil sie sich auf den Urwiderspruch und Urschmerz im Herzen des Ur-Einen symbolisch bezieht, somit eine Sphäre symbolisirt, die über alle Erscheinung und vor aller Erscheinung ist.

4) Nietzsche : 大全集 第1卷, 〈悲劇의 誕生〉 s. 43.

5) Nietzsche : 小全集 第2卷, “Ecce homo”, s. 1111.

6) Nietzsche : 大全集 1卷, “Die Geburt der Tragödie”, s. 133. “-die Tragödie mit ihrem metaphysischen Troste auf das ewige Leben jenes Daseinskernes.”

7) Nietzsche : 大全集 第1卷, 〈悲劇의 誕生〉, s. 110.

8) Nietzsche : 大全集 第1卷, 〈悲劇의 誕生〉, s. 113.

9) Nietzsche : 大全集 第1卷, 〈悲劇의 誕生〉, s. 13.

10) Nietzsche : 小全集 第2卷, “Ecce homo”, s. 1129.

말할나위도 없이, 그것은 時代의 斷絶(epoche)이고, 그리고 거기에 明白하게 缺乏되어 있는 것은 <未來에 對한 希望>의 意志이다.

Nietzsche는 Wagner와 Schopenhauer에 陶醉하면서도, 그들에게서 滿足할 수 없는 데에 그의 悲劇은 始作된다.

II

生の 自然性을 咀呪하고 否定하고 誹謗하는 者로 轉落한 R. Wagner나, 生の 無價値와 無意味를 말한 Schopenhauer와는 달리, Nietzsche는 生の 目的을 어디까지나 <生 그 自体>의 方向으로 逆轉시켜, 生の 意味를 生の 發展에 있어서만 認定하려고 하였고, 더욱 未來에 對한 希望마저도 拋棄할 理由는 없고, 도리어 事物의 根抵에 있는 生은 不壞의 힘을 지니고, 喜悅에 넘치는 「形而上學的인 慰安」(Dir metaphysische Trost)이 었다.¹¹⁾

勿論 그는 <Schopenhauer als Erzieher>¹²⁾와 <Richard Wagner in Bayreuth>¹³⁾에서, 이미 그 深部に 그들을 否定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더욱 Bayreuth의 幻滅은 그에 대한 未來의 希望이 完全히 부셔지고 만다.

「그의 音樂은 결코 不明確한 氣分的인 것이 아니다. 人間이든 自然이든 그의 音樂을 通해서 말하는 모든 것은 嚴密하게 個性化된 情熱을 지니고 있다」¹⁴⁾라던가 또는 「Wagner는 演劇의 革命家, 眞全한 人間社會에 있어서의 藝術의 位置의 發見者, 過去의 人生考察의 詩的說明者, 哲學者, 歷史家, 美學者이며 批判家」¹⁵⁾라고 <反時代의 考察>에서 모든 讚辭를 아끼지 않았던 그가, 「Wagner의 音樂은 “未來가 없는 音樂”(eine Musik ohne Zukunft)¹⁶⁾이라고 비방도 하고, 또는 “俳優 Wagner는 하나의 暴君이다”(Der Schauspieler Wagner ist ein Tyrann.)¹⁷⁾라고 까지 평한다.

11) Nietzsche : 大全集 第1卷 <悲劇의 誕生>, s. 55.

12) Nietzsche : 大全集 第1卷 <反時代의 考察 第3部>, “Schopenhauer als Erzieher”

13) Nietzsche : 大全集 第1卷 <反時代의 考察 第4部>, “Richard Wagner in Bayreuth”

14) Nietzsche : 大全集 第1卷 <Unzeitgemässe Betrachtungen>, <反時代의 考察 三部> — 教育者로서의 Schopenhauer, s. 420. 「Seine Musik ist niemals unbestimmt, stimmunghaft ; alles, was durch sie redet, Menschen oder Natur hat eine streng individualisierte Leidenschaft.」

15) Nietzsche : 大全集 第1卷 <反時代의 考察 第二部>, — 生에 對한 歷史의 利害 —, s. 281.

16) Nietzsche : 大全集 第8卷 <Nietzsche contra Wagner>, s. 191.

17) Nietzsche : 大全集 第8卷. “Der Fall Wagner”, s. 26. 「— Der Schauspieler Wagner ist ein Tyrann, sein Pathos wirft jeden Widerstand über den Haufen.」

뿐만 아니라, 그는 또 嘔吐를 느낄 만큼 Hegel의인 냄새가 풍기는, 그리고 Schopenhauer의 屍體의 냄새가 풍기는 歐羅巴의인 審美的 價値를 否定한다.¹⁸⁾

모든 固定的인 定見에 의한 眞理나 價値를 “事物 自体”(Wesen an sich)에서가 아니라 “認識 自体”(Erkenntniss an sich)에서 찾으려고 하는 認識의 假構性을 알세우기도 한다.¹⁹⁾

그러하여 그는 未來의 새로운 價値의 創造를 위해선, 必然的으로 從來의 남은 價値는 事情없이 打破해 버리는 自覺的 使命感이 앞선다.

그는 <人間的이고, 넘어나 人間的인 것>(Menschliches, Allzumenschliches)에서

『前進하라! ……(中略)……때로는 네가 不愉快하게 느꼈던 이 土壤이야말로, 다름아닌 不純한 思想의, 바로 그 土壤이었지만, 옛날엔 모든 화려한 文化들이 열매를 맺고, 그 結實을 본 土壤이 아닌가. 따라서 사람은 자신을 넘어져야만 한다. 그들의 結實보다는 더 큰 結實을 얻어야 한다. 언저까지나 그 結實의 魅力에 머무는 한, 너는, 그들을 理解했다고는 할 수가 없다.』²⁰⁾

그러므로 Nietzsche는 어디에 隸屬되지도 않고, 從來의 既存思想마저도 믿지 않고, 所謂 말하는 自由精神(Freiheit)으로서 『反時代的 考察』의 立場을 取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冷靜한 優越的인 懷疑的 觀察者와는 相當한 距離가 있다.

Nietzsche는 極端的인 破壞的인 現實批判과 暴露에 의하여, 모든 迷妄과 妥協과 寬大를 打破한 然後에도, 그 생이 견디어 나갈 수 있는가를 그 自身을 實驗하려고 했다.

最惡의 試鍊마저도 情熱的으로 渴求하는 反基督教者는, 도리어 그 情熱 때문에 어떤 意味에서 基敎的인 넘어나 基督的인 求道者이기도 하다.

그는 스스로 反基督教者로 自處하지만, Theodor Steinbüchel의 말을 빌리면, 그는 時代的으로 前基督教的, 內容的으로 反基督教的, 實質的 價値의 點에선 超基督教的인 異端이었다.²¹⁾

18) Nietzsche : 小全集 第2卷, “Ecce homo”

19) Nietzsche : 大全集 第15卷<“Die Wille zur Macht”>, s. 325.

『-Es gibt kein “Wesen an sich”(die Relationen constituieren erst Wesen-), so wenige es eine “Erkenntniss an sich” geben kann.』

20) Nietzsche : 大全集 第2卷 <Menschliches, Allzumenschliches>, s. 266.

『Vorwärts. -(中略)-Sind nicht gerade auf dem Boden, welcher dir mitunter so missfällt, auf dem Boden des unreinen Denkens, viele der herrlichsten Früchte älterer Kultur aufgewachsen? Man muss Religion und Kunst wie Mutter und Amme geliebt haben-sonst kann man nicht weise werden. Aber man muss über sie hinaus sehen, ihnen entwachsen können; bleibt man in ihrem Banne, so versteht man sie nicht.』

21) Theodor Steinbüchel : Friedrich Nietzsche, -Eine christliche Besinnung. 參照.

〈人間的인, 넘어나 人間的인〉, 〈曙光〉²²⁾(Morgenrötte) 또는 〈즐거운 科學〉²³⁾(Die fröhliche Wissenschaft) 등에 있어서의 殘酷한 生體解剖(Vivisektion)는 도리어 自己自身の 生體解剖며, 表面的으로 現實에 대한 Mephistopheles 的인 冷笑을 던지지만, 實은 그 冷笑도 그 自身에 對한 苦行者의인 自虐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리고 아래로 아래로 〈地下的인 것〉에로의 潛行을 애쓰는 惡魔의인 態度는, 그 自身 確固히 설 수 있는 그 밑바닥까지 到達하려는 必死的인 努力과 渴求와 憧憬의 假面인 것이었다.

이러한 希求와 渴望, 그리고 苦惱를 前提함으로서만이, 우리는 그의 Dionysos의인 世界觀 깊숙이 숨어있는 그의 思想을 理解할 수가 있다.

II

Nietzsche에 의하면, 人類文化의 始祖로서의 榮譽를 지니고 있는 希臘民族의 偉大함은, Archilochus나 Sophokles들의 悲劇詩人들이 아름답게 描寫해 낸 希臘悲劇을 創作해 낸 데에 있다고 보았다.²⁴⁾

왜냐하면, 健康한 文化는 人生의 暗黑面과 싸워 이를 征服하고 暗黑面까지도 包含한 人生의 全体를 그대로 肯定하는 높은 見地와 不掘의 能力을 가지고, 모든 種類의 厭世主義를 뿌리채 없애 버리는데서 開花하지만, 希臘悲劇이야말로, 그들이 決코 厭世主義가 아니었다는 것을 實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²⁵⁾

希臘사람들은 美와 빛의 神 Apollon에 의하여 象徴되리 만큼 明朗하고 健康한, 現世謳歌의 造形美術의 傑作이나, 또는 壯重하고 雄渾한 叙事詩를 만들어낸 民族이며, 暗黑보다는 光明을, 無形態의인 것보다는 形態의인 것을 취할려는 樂天的인 民族처럼 보이지만, 그 實은 그

22) Nietzsche : 大全集 第4卷, "Morgenrötte"

23) Nietzsche : 大全集 第5卷, "Die fröhliche Wissenschaft"

24) Nietzsche : 大全集 第1卷, "悲劇의 誕生", s. 47.

「Archilochus는 民謠를 文學에 導入하여 커다란 業績을 남겼다. 한 民族의 狂燥의인 衝動이, 그 民族의 音樂 中에 永遠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과 같이, 藝術的 二重衝動은 民族속의 그 痕跡을 남기고 있다. 아니, 우리들은 民謠의 根底에, 前提로서 항상 Dionysos적인 潮流를 생각하는 것이다.」

25) Nietzsche : 大全集 第1卷 〈悲劇의 誕生〉, s. 31.

「Der Grieche kannte und empfand die Schrecken und Entsetzlichkeiten des Daseins : um überhaupt leben zu können, musste er vor sie hin die gränzende Traumgeburt der Olympischen stellen.」

러한 樂天性은 淺薄한 立場에서의 單純한 人生肯定으로서 成立된 것이 아니며, 人生의 暗黑面에 對한 無知에서 基因된 一面의인 人生謳歌는 더욱 아니었다.

實은 希臘民族이야말로 人生의 暗黑이나 矛盾, 그리고 非合理性에 關하여 銳敏한 感受性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生을 밝게 表現하는 데에 渾身の 努力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 점을 理解하지 않고서는, 그들 깊숙히 숨어있는 眞義를 把握할 수가 없다.

Apollon的인 〈希臘의인 明朗〉(Griechische Heiterkeit)함이 그 밑 뿌리에 숨어 있는 虛無惑을 가장 잘 表明한 것으로 Nietzsche는 다음과 같은 希臘의 옛 傳說을 이끌어 냈다.

『Midas王이 Dionysos의 同伴者인 賢者 Silen에게 “人間에 있어서 가장 最上이며 最善의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Dämon은 몸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王에게 強制되어서, 突然 그는 嘲笑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불상한 하루살이 種族아, 偶然과 辛酷의 아들들이여! 무엇을 너희들에게 말할 것을 強要하는가— 듣지 않는 것이 너에게 더 有益할 것을.

너희들에 있어 最善의 것은 只今으로선 별 道理가 없지만, —태어나지 않는 것, 存在치 않은 것, 無로 있는 것—.

그러나 너를 위하여 次善의 것은, —곧 죽는 것이다.』²⁶⁾

여기에 明示된 바와 같이 希臘民族의 叡知는 明白히 그들이 生存의 恐怖와 苦惱를 生생하게 感得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 生存의 어두운 深淵을 正視하면서, 그 위에 夢幻의 美의 世界를 構想하여 그 어둡고 더러운 現實을 이겨나갈려고 하는 努力이 Apollon的인 造形藝術을 만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이 Apollon的인 夢想의 幻覺世界는, 그것을 生産해 낸 原動力이었던 Dionysos的인 生存을, 그 生存의 深淵으로 부터 遊離시켜 단지 逃避의 生의 表現에 不過했을 때는 그것은 暫時 동안의 平安이란 錯覺을 줄 뿐, 永遠한 生과 永遠한 平安은 約束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26) Nietzsche : 大全集 第1卷 〈“Die Geburt der Tragödie”〉, s. 30.

『Es geht die alte Sage, dass König Midas lange Zeit nach dem weisen Silen, dem Begleiter des Dionysos, im Walde gejagt habe, ohne ihn zu fangen. Als er ihm endlich in die Hände gefallen ist, fragte der König, was für den Menschen das Allerbeste und Allervorzüglichste sei. Starr und unbeweglich schweigt der Dämon; bis er, durch den König gezwungen, endlich unter gellem Lachen in diese Worte ausbricht: “Elendes Eintagsgeschlecht, des Zufalls Kinder und Mühsal, was zwingst du mich für dir zu sagen, was nicht zu hören für dich das Erspriesslichste ist? Das Allerbeste ist für dich gänzlich unerrichbar: nicht geboren zu sein, nicht zu sein, nichts zu sein. Das Zweitbeste aber ist für dich—bald zu sterben”.』

이러한 錯覺은 반드시 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러한 “Apollon의인 것”의 裏面을 드러다본 生의 眞相은, 一切를 生産하면서, 破壞하면서 無限히 流轉을 거듭하는 根源의인 意志力으로 볼 수는 없을까?

이를 Schopenhauer 式으로 말한다면, 盲目的인 生命意志(Der blinde Wille Zum Leben)이다.

그러나 Nietzsche는 生의 深淵 그 속에서 보여지는 이 生命力을 『Das Dionysische』라고 命名한다.

IV

Dionysos는 元來, 狂亂과 陶醉의 酒神이며, 사람들을 誘惑하여 忘我之境에 집어 넣는 東方의인 激情的인 神이지만, Nietzsche는 〈生의 本質〉을 이러한 Dionysos의인 것으로 보고, Apollon의인 것은 Dionysos의인 것의 影像이며, 그 假幻的인 現象에 不過한 것으로 보았다.

Dionysos의인 生의 實相은, 破壞와 否定的인 세찬 소용돌이 속에서 激動하여 마지 않는 것이며, Herakleitos가 說明한 바와 같이 〈萬物流轉〉의 世界이다.

여기에선 어떤 것이든 그 生成 消滅의 運命에서 安住할 수는 없다.

따라서 形態的인 것, 個我的인 立場을 固執하려는 者에 있어서, 이는 苦惱와 絶望의 源泉으로서 恐怖의 對象이 된다.

Schopenhauer의 厭世主義는 아마도 이러한 立場에서 成立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生을 그 自体의 根源에 歸一시켜, 그와 一体가 된 生을 “살려고 하는 者에 있어선 個我的인 悲劇에 그 自身을 스스로 죽임으로서 擇하는 永遠한 創造的인 生을 蘇生시켜 全体的인 生命의 흐름과 더불어 살아가는 忘我的인 陶醉境에 삶을 營爲하는 것이 더 意義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根源的인 生命力에 부딪쳐 이를 肯定하고 그와 一体가 되어 삶을 營爲하는 이 Dionysos의 世界觀을 生의 根源에 歸하고 苦惱와 煩惱, 非合理的인 生存現實을 즐기면서 自由로운 手段으로서 Apollon의인 造形藝術을 創作할 때 거기에 人生에 있어서의 眞實된 肯定, 참된 救援이 可能하게 된다.

즉, 〈Dionysos의인 것〉과 結付된 存在가 生의 象徴으로서의 意味를 지닐때, 〈Apollon의인 것〉도 비로소 그 眞價가 發揮되는 것이며, 이러한 統一을 典型的인 形態로 實現해 준 것이 希

臘悲劇의 世界였 다라고 그는 主張한다.²⁷⁾

Dionysos神을 讚美하는 祭式的 野蠻인 亂舞 속에서 信徒들이 體驗하는 것은 日常的 合理打算의 自我를 抹殺해 가는 苦惱와 煩惱를 통해서 根源인 全一者와 合体한다는 激烈한 歡喜의 生存肯定이며 苦樂과 一體가 되어 陶醉하여 忘却의 境地에 빠져든 生의 謳歌였다.

이러한 體驗을 아름답게 노래한 것이 Satyr(半羊半神)의 “코—라스”였고, 이 “코—라스”가 發展하여 對話的인 詩劇의 形態가 樹立되었고, 이러한 Dionysos讚歌의 音樂인 感動의 直接性을 〈言語〉나 〈所作〉으로 對象化시킨 것이 希臘悲劇이었다.²⁸⁾

이와 같은 獨創的인 悲劇解釋을 내림으로서, 그는 希臘文化의 Dionysos的인 世界觀을 크게 앞세웠다. 그리고 이 Dionysos的인 思惟方式은 始終一貫 그의 末期作品에 이르기까지 그 中心核心이었고, 支柱였다.

이 Dionysos的인 것을 生存解決의 根源에 두고, 人類文化의 價値를 그의 遠近法에 依據하여 再定立하려는 데에 그의 思想의 中心課題였다.

Nietzsche는 그의 著 〈偶像의 黃昏〉의 末尾에서 다음과 같이 그의 處女作 〈悲劇의 誕生〉을 回顧한다.

了…… 넘쳐 흐르는 生命과 힘의 感情으로서의 酒神密儀의 心理學은, ……悲劇의 感情이란 概念을 풀어주는 열쇠를 나에게 주었다. ……悲劇은 Schopenhauer의 意味에서 처럼 古代 希臘人들의 Pessimismus를 證明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 決定的인 拒否(entscheidende Ablehnung)나, 또는 反對法廷(Gegen-Instanz)으로 보아야 한다.

그의 가장 疏遠한, 가장 冷酷한 諸問類마저도 〈生 그 自体〉에서 〈das Jasagen〉라고 斷言하는 것, 그 最高의 典型을 犧牲으로서 바치면서 그 自体의 無盡藏함에 狂喜하는 生의 意志—— 이것을 나는 〈Dionysis的인 것〉이라고 하며, 이것이야말로 나는 悲劇의 詩人의 心理學에 이르는 橋樑으로서 達成했다.

恐怖와 同情에서 逃避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 激烈한 爆發에 의하여, 危險한 欲情에서 몸을 깨끗이 할려고 함도 아니고……, 恐怖와 同情을 넘어서 生成의 永遠한 快樂 그 自体에 있기 위해서였다. ……〈悲劇의 誕生〉은 나의 最初의 모든 價値의 價値轉換이었다. ……나, 哲學者 Dionysis의

27) Nietzsche : 大全集 第1卷.

Bis zu diesem Punkte ist des Weiteren ausgeführt worden, was ich am Eingange dieser Abhandlung bemerkte : wie das Dionysische und das Apollinische in immer neuen auf einander folgenden Geburten, und sich gegenseitig steigernd, das hellenische Wesen beherrscht haben : (s. 38.)

Und siehe ! Apollo konnte nicht ohne Dionysos leben ! (s. 37.)

28) Nietzsche : 大全集 第1卷 〈悲劇의 誕生〉, s. 55.

最後の 弟子인 나, - 永遠回歸의 教師인 나는…….]²⁹⁾

여기에서 Nietzsche가指摘한 대로 Dionysos의 世界觀은, 快樂을 苦痛의 回避로서 理解하는 功利主義를 물리치고, 苦痛의 克服이야말로 참된 高貴한 快樂으로 보는 그의 英雄主義라던가, 善惡二元의 對立, 鬪爭을 통해서 眞正한 價値가 創造된다는 反道德의인 立場과 聯關되며, 나중엔 生成의 過程 그것에 無限한 意義를 認定하려는 <永遠回歸>思想의 母體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佛敎의 <靈魂輪廻>의 思想을 높이 評價했고, 더욱 希臘悲劇속에 있는 Dionysos의인 世界觀을 說破한 哲人 Herakleitos를 높이 評價한다.

[Herakleitos의 가까이에선 나는 어느 누구보담도 나의 마음은 따뜻해 진다. Dionysos哲學에 있어서 決定的인 것, 即 消去와 絶滅을 肯定하는 것, 對立과 戰鬥에 對하여 <Ja!>라고 對答하는 것, 存在라는 概念을 徹底하게 拒否하는 生成의 立場—— 이러한 모든 點에 나는 이제까지 思索되여진 것 가운데에서 나에게 血緣的인 思想을 認定하지 않을 수가 없다.

<永遠回歸>의 思想, 즉 모든 事物이 無條件으로, 無限히 循環한다는 思想, — 이 Zarathustura의 敎說도, 結局은 이미 Herakleitos에 依하여 說明되었던 것이다.]³⁰⁾

이러한 觀點에 설때, 希臘悲劇의 題材에 對하여 合理的인 解釋을 가한 悲劇詩人 Euripides는 非合理的인 生存의 Dionysos의인 根源에서 悲劇을 遊離시킴으로서 悲劇은 淺薄化되고, 그 眞精神마저도 抹殺해 버린 張本人의 하나라고 그는 非離한다.³¹⁾

29) Nietzsche : 大全集 第8卷 <偶像의 黄昏>, (Götzen-Dämmerung), s. 173-174.

[Die Psychologie des Orgasmus als eines, überströmenden Leidens- und Kraftgefühls, —, gab mir den Schlüssel zum Begriff des tragischen Gefühls, —. Die Tragödie ist fern davon, Etwas für den Pessimismus der Hellenen im Sinne Schopenhauers zu beweisen, dass sie vielmehr als dessen entscheidende Ablehnung und Gegen-Instanz zu gelten hat. Das Jasagen zu Leben selbst noch in seinen fremdesten und härtesten Problemen, der Wille zum Leben, im Opfer seiner höchsten Typen der eignen Unerschöpflichkeit frohwerdend— das nannte ich dionysisch, das errieth ich als die Brücke zur Psychologie des tragischen Dichters. Nicht um von Schrecken und Mitleiden loszukommen, Nicht um sich von einem gefährlichen Affekt durch dessen vehemente Entladung zu reinigen— sondern um, über Schrecken und Mitleid hinaus, die ewige Lust des Werdens selbst zu sein, —Die “Geburt der Tragödie” war meine erste Unwerthung aller Werthe: damit stelle ich mich wieder auf den Boden zurück, aus dem mein Wollen, mein Können wächst... ich, der letzte Jünger des Philosophen Dionysos, ... ich, der Lehrer der ewigen Wiederkunft…….]

30) Nietzsche : 小全集 第2卷, Ecce homo, s. 1032.

31) Nietzsche : 大全集 第1卷 <Die Geburt der Tragödie>, s. 85.

[Jenes ursprüngliche und allmächtige dionysische Element aus der Tragödie auszuschneiden und sie rein und neu auf undionysischer Kunst, Sitte und Weltbetrachtung aufzubauen— dies ist die jetzt in heller Beleuchtung sich uns enthüllende Tendenz des Euripides.]

이러한 Euripides를 통해서 Sokrates의 합리主義라던가, 道德主義가 생기고, 나아가선 Platon의 彼岸主義의 形而上學이 생기지만³²⁾ 이것을 Nietzsche에 있어서는 生存의 現實로부터의 卑怯한 逃亡이며 生의 退廢現象(*décadence*)으로 밖에 볼 수가 없었다.

이러한 Dionysos의인 悲劇精神이 枯渴할 때 希臘民族의 偉大한 自然肯定의 健康한 生存의 힘은 消滅되고, 차츰 此岸의 生을 彼岸의 理念이나 神에게 犧牲으로서 바치는 基督敎的인 厭世觀이 浸透했다고 본 것이 Nietzsche의 古代研究의 結論이었다.

V

그는 「모든 眞理나 價値의 意味를, 客觀的으로 固定된 것으로 생각하여 絶對化하려는 形而上學的인 思考를 하나의 假構」³³⁾로 보는 超時代的인 遠近法主義에 依據하여 「一切의 價値는 生命主体의 生의 展開와 相關的인 面에서만 그 意味가 定해지는 것」³⁴⁾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一切의 眞理나 價値는 相對化되고, 生命主体를 中心으로 해서 生命主体가 내리는 生存解釋의 觀點에서 그 遠近法(Perspektive)으로, 配置된다.³⁵⁾

이 遠近法의 中心에 놓여있는 것은 生의 創造的인 根元力으로서 “힘에의 意志”(Die Wille zur Macht)이며 歐羅巴 2,500年의 歷史를 一舉에 逆行하여 到達한 希臘時代의 生産的 自然이며, 그의 象徴으로서의 Dionysos의인 活力이었다.

이 活力, 이 自然은 破壞와 再建의 끝없는 生成의 渦中에서 自身의 本質을 實現해 간다. 그리고 이 끝없는 自己 實現의 過程을 통해서 모든 種類의 價値觀點(Point-de-vue-Gedanke)을 設定하여 그 生의 秩序를 整頓함과 同時에, 그것마저도 넘어서고 破壞하여 더 높은 立場의 價値觀點으로 移行한다.

이러한 遠近法的인 人生解釋의 哲學은 Nihil한 危急한 時代에 새로운 發展方向과 自由로운 活路를 提示하였고, 創造的 活動의 意力(Energie)를 供給하는 機能을 指示함으로써 새 時代의 推進力을 찾게 했던 것이다.

Nihil한 現實을 正視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 이 Nihil한 現實을 Nihil하기 때문에 그대로 肯定하는 革新的인 價値觀念을 提示하는 것이 Nietzsche의 「永遠回歸」와 「運命愛」의 思想이다.

32) Nietzsche : 大全集 第1卷, s. 86.

33) Nietzsche : 大全集 16卷, s. 112.

34) Nietzsche : 大全集 7卷, s. 54.

35) Nietzsche : 大全集 14卷, s. 86.

『……내가 體驗한 實驗哲學은, 徹底하게 Nihilismus의 可能性을 試行的으로 스스로 先取하는 것이다. 그렇다 하여 이 哲學은 否定에, 否에, 否에의 意志에 머무른다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이 哲學은 그의 正反對에 까지 貫徹하려고 하는, ——世界에 對하여 Dionysos的인 肯定을 對答할 때까지, ——挖除도 없고 例外도 없고 取捨도 없는 것은 그대로의 世界에의 肯定에 이르기까지——이 哲學은 永遠의 回歸을 願한다. 같은 事物, 俗物化와 같은 論理學과 非論理學을 哲學者인 者가 到達할 수 있는 最高의 境地, Dionysos的으로 現存在에 서는 것, ——이것에 대한 나의 公式은 運命愛(amor fati)이다.』³⁶⁾

Nietzsche는 圓環을 이루면서 되풀이 하여 그 自身에게 *되돌아오면서 發展한다는 觀念은 그가 選擇하려는 하나의 遠近法의 立場으로서의 價値(Stellenwert)를 賦與하여, 現在와 未來의 生의 價値를 樹立하려는 「힘에의 意志」의 〈Ja-Sagen〉의 應諾의 意味에서 正當한 價値序列에 의하여 그러한 意志에 適合한 힘의 現實을 誘致함에 이른다. 이 遠近法을 有効하게 하는 것(Zur-Geltung-bringen)에 의하여 生을 否定하는 者들의 길은 遮斷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永遠回歸의 遠近法은 瞬間 속에서 永遠을 보는 것이 可能해지는 것이며 그것은 결코 永遠을 彼岸에 돌려보내는 方式에서가 아니고 瞬間의 生氣를 喪失시킬려는 것도 아니다. 도리어

『生成에 存在의 性格을 刻印하는 것, ——그것이 最高의 힘에의 意志이다. ……모든 것이 回歸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의 生成의 世界가 存在의 世界에의 極限까지의 接近이다.』³⁷⁾

『生의 充溢에 있어서의 가장 풍부한 것, 저 Dionysos的인 神과 人間은 처참하리 만큼 괴상한 광경도 許容하는 것이다. 그런인가, 무서운 行爲도, 破壞, 粉粹, 拒絕, 여하한 浪費(Luxus)도 泰然히』³⁸⁾

그에 있어서는 惡도 無意味도 醜한 것도 마치 自然에 있어서와 같이 許容되어진 것처럼

36) Nietzsche : 大全集 第15卷, 〈Der Wille zur Macht〉, s. 483.

「—Eine solche Experimental-Philosophie, wie ich sie lebe, nimmt versuchsweise selbst die Möglichkeiten des grundsätzlichen Nihilismus vorweg : ohne dass damit gesagt wäre, dass sie bei einer Negation, beim Nein, bei einem Willen zum Nein stehen bliebe. Sie will vielmehr bis zum Umgekehrten hindurch— bis zu einem dionysischen Ja-sagen zur Welt, wie sie ist, ohne Abzug, Ausnahme und „Auswahl“—, sie will den ewigen Kreislauf : —dieselben Dinge, dieselbe Logik und Unlogik der Verknotung. Höchster Zustand, den ein Philosoph erreichen kann : dionysisch zum Dasein stehen— : meine Formel dafür ist amor fati.」

37) Nietzsche : 大全集 第12卷, s. 371.

38) Nietzsche : 大全集 第8卷, s. 193.

보이는 것이다.

『寸斷된 Dionysos의 조각은 生の快慾이며 永遠히 다시 蘇生하고, 永遠히 破壞로부터 되돌아 온다.』³⁹⁾

産出하고 回慾시키는 힘 이것은 같은 것의 永遠回歸란 遠近法の 地平線에서 認識되며 내 손안에 드는 것이 된다. 그러나 永遠回歸의 遠近法 속에서 瞬間을 思惟하는 者는 無에——歸依하는 데에 超克하기 위해선 勇氣를 북돋우어야 한다.

『生成이 하나의 커다란 輪還이라면 모든 것은 같은 價値를 지니고, 永遠하고 必然적이다. ——肯定과 否定, 愛好와 嫌惡, 愛와 憎의 相關關係 속에는 生の 特定類型의 어떤 遠近法이, 關心이 表現되어 있는 것이다. 卽 그 自体로서 存在하는 모든 것은 <Ja>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⁴⁰⁾

「그리고 大体 <世界>는 나에게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가. …나의 거울에 비쳐 보면……

이 世界는 始初도 없고 終末도 없는 絶大한 <힘>이라고 나 할까. …단지 轉變할 뿐 全体로서 不變이며, 支出도 없고 損失도 없는……永遠히 流轉하면서, 永遠히 逆流하면서 끝없는 回歸의 歲月을 되풀이하면서, 밀물과 썰물처럼 自己形成이 이루어졌다가도, 그 形成이 깨어지는 가장 단순한 것로부터 가장 多樣한 것으로 변하며, 가장 靜寂한 것, 가장 硬直한 것——가장 寒冷한 것로부터 猛烈히, 뜨겁게, 荒涼한 自己撞著으로 변하는, 그런가하면, 다시 充溢에서 單純한 것으로 歸還하면서, 矛盾의 遊戲에서 調和의 喜悅에 돌아오며, 變함이 없는 軌道와 歲月을 거듭하면서, 어떤 倦怠도 어떤 飽滿도 어떤 疲勞도 모르는 하나의 生成으로서 스스로를 祝福하면서, ——永遠히 스스로를 創造하고, 永遠히 스스로를 破壞하는, 이 나의 Dionysos의 世界,

二重의 情欲의 이 秘密의 世界. 萬一 이 圓環이 善한 意志를 가지지 않았다면, 意志가 없는 데로 이 나의 <善惡의 彼岸>. ……」

——이 世界는 힘에로의 意志이다. ——그리고 그³⁹⁾以外的 아무것도 아니다.⁴¹⁾

Nietzsche의 이러한 Dionysos의인 世界觀은 모든 絶對主義의인 思考의 偶像崇拜의인 偏見을 拒否하고 人間精神의 自由로운 創造性을 重視하는 人間探究의 精神은, 現代에 뛰어난 文學作家

39) Nietzsche : 大全集 第15卷, s. 490.

「—der in Stücke geschnittene Dionysos ist eine Verheissung des Lebens: es wird ewig wiedergeboren und aus der Zerstörung heimkommen.」

40) Nietzsche : 大全集 第15卷 <權力에로 意志> “Der Wille zur Macht”, s. 293.

41) Nietzsche : 大全集 第15卷 <Der Wille zur Macht, > s. 411.

들의 創作活動에 커다란 影響을 미치었다. 特히 獨逸의 Rilke, Hesse, Thomas Mann 등의 小說은 Nietzsche와의 對話없이는 創作되지 못했을 것이다.

더욱 實存主義哲學者 Jaspers나 Heidegger의 哲學에도 커다란 影響을 미치었다. 特히 西洋 二千年의 形而上學의 歷史를 存在忘却의 歷史로 보고, Sokrates 以前의 希臘의 詩人哲學者들이 表現한 바와 같은 自然의 根源으로 歸郷하는 것만이 虛無에 苦惱하는 現代人을 治療하는 것이라고 主張하는 Heidegger의 見解中에는 "Nietzsche의 再來"를 생각해 하는 점이 많다.

또한 모든 固定的인 定見을 떠나 眞理나 價値를 生의 發展과 相對的인 位置에서 볼려는 Nietzsche의 遠近法的인 認識論은 事象 그것에 即하여 그 本質을 把握하려는 現象學派의 哲學, 特히 Nikolai Hartmann의 現象學的 倫理學의 思想에서도 그의 貴重한 遺産을 남긴 것이다.

「Und wisst ihr auch, was mir "die Welt" ist? Soll ich sie euch in meinem Spiegel zeigen? Diese Welt: ein Ungeheuer von Kraft, ohne Anfang, ohne Ende, -- nur verwandelt, -- ein Haushalt ohne Ausgaben und Einbussen, ---, vielmehr als Kraft überall, als Spiel von Kräften und Kraftwellen zugleich Eins und Vieles, ---, ein Meer in sich selber stürmender und fluthender Kräfte, ewig sich wandelnd, ewig zurücklaufend, mit ungeheuren Jahren der Wiederkehr, mit einer Ebbe und Fluth seiner Gestaltungen, ---, aus dem Stillsten, Starrsten, Kältesten hinaus in das Glühendste, Wildeste, Sich-selber-Widersprechendste, ----, sich selber bejahend noch in dieser Gleichheit seiner Bahnen und Jahre, sich selber segnend als Das, was ewig wiederkommen muss, als ein Werden, das kein Sattwerden, keinen Überdruß, keine Müdigkeit kennt--: diese meine dionysische Welt des Ewig-sich-selber-Schaffens, des Ewig-sich-selber-Zerstörens, dieses Geheimniss-Welt der doppelten Wollüste, dies mein "Jenseits von Gut und Böse", wenn nicht im Glück des Kreises ein Ziel liegt, ohne Willen, wenn nicht ein Ring guten Willens ist, ----.

---Mit dem Willen zum Wieder-und-noch-ein-Mal-Wollen?

Zum Zurück-Wollen aller Dinge, die je gewesen sind? Zum Hinaus-Wollen zu Allem, was je sein muss? Wisst ihr nun, was mir die Welt ist? Und was ich will, wenn ich diese Welt-- will? ----」

— Summary —

Die dionysische Weltanschauung bei Nietzsche

Boh-kyum Kim

“Wissenschaft, Kunst und Philosophie wachsen jetzt so sehr in mir zusammen, das ich jedenfalls einmal Centauren gebären werde”, schreibt Nietzsche Ende Januar 1870.

In seinem Frühwerk “Die Geburt der Tragödie” offenbart sich schon eigentlich der ganze Nietzsche, der in bezug auch auf das Historische, auf ein zeitlich begrenztes, nur in sich gültiges geschichtliches Thema ganz und gar kontrapunktisch dachte (Betrachtung des Griechentums unter der Formel “apollinisch=dionysisch”), der Kulturen physiognomisch zu nehmen wusste.

Nietzsche war Romantiker, der letzte Romantiker, der sich eben deshalb nach Kultur nur sehnen konnte, die er um sich herum bereits vermißte. Nietzsche war auf der anderen Seite wiederum kein Systematiker, kein Vertreter analytisch=kritischer Wissenschaftsmethodik; er hat uns auch in dieser Beziehung neue fruchtbarere bzw. zeitgemäßere Wege gewiesen. Wege, die uns vom alten Wissenschaftsideal immer mehr entfernt.

Ob wir es zugeben oder nicht, ob wir es wollen oder nicht, wir sind heute alle, was die Relativierung von Werten und Idealen jeglicher Art bzw. was deren Verzeitlichung betrifft, die Schüler Nietzsches, dessen Ideal schließlich die Ideallosigkeit gewesen ist (denn alle “Ideale” werden ja in dieser Philosophie zuletzt zu Krücken für die Schwachen), der—unter dem Aspekt des Willens zur Macht—zum großen Moralerneuerer insofern wurde, als er den Nachweis zweier von jeher nebeneinander bestehender Moralen erstmalig zu führen wagte, den Nachweis einer Herrenmoral und einer Sklavenmoral und damit den Nachweis von der Zeitbedingtheit und Abhängigkeit vom menschlichen Wesen, von Blut, Herkunft, Rasse des Individuums, auch aller moralischen Werte. Der Wert der Wirklichkeitsformen, die das Leben jeweils annimmt, richtet sich in keiner Hinsicht nach “ewigenGesetzen”, sondern einzig und allein nach dem Intensitätsgrade des dahinterstehenden **W i l l e n s z u M a c h t**.

Nietzsches Fragment gebliebenes Hauptwerk des “Willens zur Macht”, das die wesentlichen Probleme des 19. Jahrhunderts im Sinne des 20. Jahrhunderts sieht und beantwortet, enthält bereits alle Aufgaben der nächsten hundert Jahre.